

빼앗긴 그라운드에 봄은 오는가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 작업이 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되고 있다. 16일 고척 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키움 선수 중 고열 증상을 보이는 이가 나오면서 훈련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KBO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 예정돼 있었던 2020 정규 시즌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스포츠 올스톱 프로축구·야구 개막 줄줄이 지연 전용구장 외부인 차단 방역 총력

코로나19로 그라운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K리그는 3라운드 일정을 소화하면서 초반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야 했다. 프로야구도 시범경기 일정을 통해 기지개를 켜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그라운드가 얼어붙었다.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석현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해외 각국 리그에

선수들, 이동 반경 최소화 감염 우려에 연습 경기도 조심조심 각 구단, 선수들 컨디션 관리 비상

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16일에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고열자가 나오면서 훈련 일정이 전면중단되기도 했다. 다행히 이 선수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7일 SK와 NC의 협력업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광주FC와 KIA타이거즈도 개막 연기에다 코로나19 공포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3월 1일 성남FC와의 시즌 개막전을 준비했던 광주는 광주축구전용구장에 발이 묶였다. 선수들은 집·클럽하우스와 전용구장을 오가면서 그라운드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격일로 클럽하우스 방역을 하면서 외부인의 접근을 아예 차단했다. 팬은 물론 취재진의 방문도 금지되면서, 취재는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고 있다. 광주는 시즌처럼 선수단 스케줄을 운영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활동 반경에 제한을 뒀다. 광주 선수들은 토요일 훈련 뒤 월요일 재소집 시간까지 휴식 시간을 보낸다. 단 선수들은 광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 선수들의 이동 반경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위험성을 낮추려는 방안이다.

최대한 조심 또 조심하느라 실전 점검도 쉽지 않다. 태극 전지훈련을 끝내고 지난달 16일 재소집된 광주는 귀국 후 두 차례 연습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그것도 한 번은 자체 연습경기였다. 우천으로 한 차례 연습경기가 취소됐고, 상대 팀에서 발열 환자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열리지 못했다. 스프링캠프 일정을 늦춰 귀국한 KIA 타이거즈도 초긴장 상태다. KIA는 시범경기 취소로 캠프를 8일 연장, 16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루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18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챔피언스필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팬들의 접촉이 제한되고 취재진도 취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체온 측정 후 경기장 출입이 가능하고, 선수단 동선에 취재진 출입은 제한된다. 당연히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프런트도 A·B조로 나눠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휴식 모를 상황에 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것을 막고 있다. 18일 챔피언스필드에 소집되는 선수들은 19일에도 훈련을 한 뒤 20·21일 자체 흥행전을 치른다. 22일 휴식이 이후 스케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가 제한되면서 흥행전을 통한 실전 점검만 가능한 상황이다. 봄을 기다렸던 스포츠계의 잔인한 3월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코로나19에 '발목'

캐나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美 스프링캠프장서 개인 훈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33)의 상황이 난처해졌다. 류현진은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발표에 따라 팀 스프링캠프 훈련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기약 없이 개인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캐나다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와 직계 가족, 미국 국민,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 류현진도 마찬가지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캐나다 토론토를 연고로 하는 토론토 구단으로 이적했는데, 캐나다 당국의 발표로 당분간 홈구장을 밟지 못하게 됐다. 캐나다 당국의 조치로 류현진은 스프링캠프 훈련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선수들에게 자택 귀가를 권유하면서 연고지나 스프링캠프 훈련장에서는 개인 훈련만 하도록 권고했다. 토론토의 일부 선수들은 자택으로 귀가하거나



연고지인 토론토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류현진은 선택지가 없다. 캐나다는 들어갈 수 없고, 귀국도 힘들다. 코로나19 확산 문제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좋은 싫든 더니든에 남아 개인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 류현진에게 답답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KIA 9명 '김경문호' 승선

KBO, 올림픽 야구대표 예비명단 111명 확정

KBO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 111명을 확정했다. KBO는 최근 김시진 기술위원장을 비롯해 기술위원 전원이 참석한 기술위원회 열고,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에 포함할 111명을 선발했다. 포지션별로는 투수 53명, 포수와 1루수 각 6명, 2루수와 3루수가 각 7명, 유격수 8명, 외야수 24명 등이다. KIA에서는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김윤동·문경찬·박준표·전상현(이상 투수), 김주찬·박찬호(이상 내야수), 이창진·최형우(이상 외야수) 등 9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지탄(만파베이), 박효준(뉴욕 양키스) 등 해외 리그 선수와 함께 프로 데뷔를 앞둔 2020신인 정구범(NC), 소형준(KT), 남지민(한화)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KBO는 "이번 명단은 최종 엔트리 선발을 위한 사전 등록 명단으로, 이 선수들 내에서만 올림픽 최종 엔트리 구성이 가능하므로 인원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폭넓은 선발'을 강조했지만 전력 분석 부문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KIA에서는 김윤동과 하준영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윤동은 지난해 4월 18일 롯데 원정에서 어깨 부상을 입은 뒤 아직 재활을 하고 있는 상태다. 올 시즌 전반기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기술위원회는 김윤동의 이름을 명단에 넣었다. 대신 지난 시즌 KIA의 필조로 맹활약한 좌완 하준영은 111명의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아직 프로에 데뷔하지 않은 신인 선수들도 명단에 포함될 만큼 선발 기준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KIA의 주전 선수 중에서는 내야수 김선빈도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KBO는 16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통해 사전등록 명단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SK·NC 훈련 중단

협력업체 직원 코로나19 확진

프로야구 KBO리그 SK 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가 훈련을 중단했다. SK와 NC구단은 17일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전광판 운영관리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은 16일 인천 소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7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SK 선수단 내에서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력업체 대표가 1차 접촉 대상자로 포함됐다. SK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협력업체 대표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SK는 17일 오전 인천 SK행복드림구장과 사무실 내부에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18일 오전까지 선수 간 훈련을 중단하고 야구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 야구장 개방 및 훈련 재개 여부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NC도 17일 선수단 훈련 중인 경남 창원NC파크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